

해설, 예시답안, 평가 기준

■ 문항 1

1. 출제 의도

이 문항은 글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과, 이론을 적용하여 현실 문제를 심도 있게 분석하는 능력, 그리고 글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글의 독해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요지파악 능력이다. 또한 현실 문제를 심도 있게 분석하기 위한 개념 및 일반론을 이해하고 응용하는 것,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설득력 있는 글을 작성하는 것은 논술에서 요구되는 기본 능력이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이 문항의 출제 의도이다.

먼저 [문항 1 - 가]에서는 장문의 내용을 제시하여 글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그 핵심 논지를 논리적으로 재구성하도록 하였다. [문항 1 - 나]에서는 주제에 접근하는 데에 필요한 개괄적인 지식을 제공하여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데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다양한 사례를 상세한 정보와 함께 제공하여 배경지식을 많이 동원하지 않고도 자신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전개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다.

교과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수험생이라면 누구든지 문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학교 수업과 생활, 교과서 등을 통해 자주 접하는 논제 중에서 문제를 출제했다. 구체적으로, 고등학교 『법과 정치』, 『생활과 교육』, 『기업과 경영』 등에 제시된 의사결정 과정 속에서 전문가와 집단지성 그리고 여론의 역할을 이번 문항의 주제로 삼았다.

2. 제시문 해설

제시문 (가)는 전문가의 권위와 대중적 지식의 신뢰성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근대 이후 전문가의 권위는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20세기 이후 교육의 대중화와 정보 기술의 발전에 따라 대중 스스로 폭 넓은 지식에 접근하고 새로운 지식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집단지성의 중요성도 부각되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지식 검증과 진위 분별 문제, 우중화(愚衆化) 현상 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기도 한다. 이 글의 주요 내용은 아래 [문항 1-가]의 예시답안을 참고할 수 있다. 이 글은 <전문가 의견 중심>과 <시민 의견 중심> 방안 각각을 지지할 수 있는 근거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제시문 (나)는 소규모 엘리트 집단이 의사결정을 할 때 오히려 비합리적 결론에 도달하는 오류를 범할 위험성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이 글은 <시민 의견 중심 방안>을 지지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전문가 중심 방안>에 대한 반론의 근거로도 활용될 수 있다.

제시문 (다)는 여론이 다수의 의견을 객관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왜곡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한 ‘침묵의 나선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 글은 <전문가 중심 방안>을 지지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시민 의견 중심 방안>에 대한 반론의 근거로도 활용될 수 있다.

제시문 (라)는 다양한 예시를 통해 ‘집단지성’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집단지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있어 다수 구성원들의 참여를 통해 보다 더 나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 글은 <시민 의견 중심 방안>을 지지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제시문 (마)는 현대사회의 복잡한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주장한다. 전문가는 보다 더 정확하고 전문적인 지식에 기반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으며 국가전략과 정책 수립 등 거시적 문제와 관련하여 직접적 이해관계를 벗어나 공정하고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역할이 오히려 더 중요해지고 있음을 이 글은 주장하고 있다. 이 글은 <전문가 중심 방안>을 지지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3. 논제 해설 및 예시 답안

[문항 1 - 가]

제시문 (가)의 내용을 300±50자의 범위 내에서 요약하는 논제이다. 제시문의 핵심 내용을 간추려 논리적으로 서술하면 된다. 다음과 같은 답안이 가능하다.

전문가의 지위는 근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왔다. 인쇄문화와 분업체계의 정착 과정에서 전문가들은 개별화, 폐쇄화되었다. 반면 교육의 대중화와 정보 기술의 발전으로 대중들은 스스로 폭넓은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새로운 방식의 지식생산과 정보유통을 가능하게 한 집단지성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집단지성에 대해 우려하는 이들도 많다. 이들은 지식의 진위 분별이 어려워지고 각종 정보에 대한 전문적 미디어의 검증 기능이 상실되고 있다고 우려하며 집단지성이 여론의 획일화와 대중의 우중화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띄어쓰기 포함, 301자)

[문항 1 - 나]

<제시문>을 참고하여 <다음>에 제시된 전문가 중심 방안과 시민 여론 중심 방안 중 한쪽을 선택하고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는 글을 작성하는 논제이다. 두 생각 중 하나를 택하고 왜 그 쪽을 선택했는지를 제시문 둘 이상으로 참고하여 두 가지 논거를 들어 설명하되, 예상되는 반대 의견을 쓰고 그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답안이 가능하다.

* <전문가 의견 중심>을 선택한 경우:

지역문화 발전방안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의견 중심으로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 첫째, 전문가들은 뛰어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문화의 발전을 위해서는 문화뿐만 아니라 교육, 행정, 경제 등 각 분야의 유기적인 결합이 중요한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창조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문화는 각계각층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이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다.

둘째, 시민 대중들은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렵고 여론에 휩쓸리기 쉬워 시민들에게 결정을 맡기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전문성이 부족한 시민들은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자신의 의견을 바꿀 수 있고, 대중들의 우세한 의견 쪽으로 쏠리는 ‘침묵의 소용돌이’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시민들에 의해 형성된 여론이 오히려 다양성을 무시한 채 획일화할 가능성도 있다. 더욱이 시민들은 도시의 지역문화 전체를 포괄적으로 고려하기보다는 각자의 이해관계에 이끌려 합리적인 발전방안을 내기 어렵다.

시민의 집단지성에 기대를 걸어볼 수도 있지만 이는 그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위키피디아처럼 대중이 모여 성공적으로 지식의 축적과 재생산을 이루어낸 사례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식은 전문성이 부족해 대개는 ‘부드러운 지식’ 혹은 ‘약한 지식’에 불과하여 도시 전체의 정책 방향의 근간으로는 부족하다. 이렇듯 불완전한 지식에 의지하기보다는, 대중의 지식마저도 충분히 수용하여 창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방안이 타당하다. (띄어쓰기 포함, 803자)

* <시민 의견 중심>을 선택한 경우:

지역문화 발전방안은 시민의 의견을 종합해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 첫째, 전문가들은 서로 융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의 과정에서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끊임없이 개별화, 폐쇄화 경향을 보여 왔고 문제 상황에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해왔기 때문에 대중의 신뢰를 잃은 상태이다. 또한 피그만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결속력이 높은 소수의 엘리트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은 활발한 토론에 의해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획일적 사고로 쉽게 의사결정을 하는 폐해를 보이기도 한다.

둘째, 소수의 전문가들에 비해 시민들은 집단적인 지식의 형성 과정을 통하여 창조적인 지역문화 발전계획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집단지성의 결정체인 위키피디아에서 알 수 있듯이 개개인의 지식이 모이게 되면 더 큰 지식을 이루게 되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더욱이 문화는 소수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 전체가 창조하고 향유하며 전승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 전체가 참여하여 그들의 지식을 수렴해 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도시 전체와 관련된 거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시민 대중의 능력으로도 극복이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각각의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축적해 왔고 이것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대중교육의 확대에 따라 대중들의 지적 능력도 많이 향상되었고, 정보 기술의 발달로 다양하고도 풍부한 정보를 언제든지 검색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사고와 경험을 가진 시민들이 모여 기존의 지식들을 집대성해 나간다면 폐쇄적인 전문가들보다 더 나은 지역문화 발전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띄어쓰기 포함, 803자)

※ 제시문 활용의 예

* <전문가 의견 중심> 선택의 논거:

(가)

- 전문가들은 자신들의 고유한 영역에서 일반인보다 뛰어난 존재로 그 가치를 인정받아 왔다.
- 대중들은 전문가를 신뢰하고 따라 왔다.
-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문가의 조언을 받거나 전문가의 지시를 따른다.
- 대중은 상황에 따라 손쉽게 의견을 바꾸는 무책임한 아마추어이다.
- 대중이 특세하게 되면 지식의 진위를 분별하는 일이 갈수록 어려워진다.
- 대중들이 감정에 휩쓸린 나머지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우려가 있다.
- 대중영합주의에 휩싸일 경우, 개개인의 의견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사생활의 영역을 축소하며 여론을 획일화하여 개인의 생각과 행동의 자유를 제한시킬 가능성이 있다

(다)

- 대중은 어떤 의견과 행동 양식이 우세한지를 판단해 그에 따라 의견을 갖고 행동하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여론은 '획일화'의 압력의 산물이다.
- 사람들의 고립의 두려움 때문에 침묵의 소용돌이가 발생한다.
- 사람들은 대중 매체에 의해 지배적인 것으로 표현된 의견에 더욱 동조하고 그렇지 않은 의견에는 유보적 태도를 취하게 된다.

(마)

- 지식 창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축적된 지식을 지니고 이를 활용할 능력을 보유한 소위 '전문가'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 현대사회의 복잡한 현상들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보다 정확한 문제제기가 필수적이며, 이것이 전제된다면 전문가의 가치는 오히려 이전 시대보다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보았다.
- 전문가들이 생산하는 지식은 관찰과 실험을 통해 수집한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한 것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보다 깊이 있고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
- 전문가들이 생산한 지식은 국가전략과 정책 수립 등, 보다 거시적인 부분에 기여한다.
- 각계각층의 복잡한 이해관계들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조정하는 중재자로서의 전문가의 역할도 여전히 중요하다

* <시민 의견 중심> 선택의 논거:

(가)

- 개별화, 폐쇄화된 전문가들은 소통과 융합을 이루어내지 못해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 교육과 미디어의 발달로 일반인들도 전문가 못지않은 능력을 갖췄다.
- 대중교육이 일반화되어 정규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자 더 이상 전문가와 대중의 사고능력 차이가 인정되지 않게 되었다.
- 정보기술의 발달로 대중 스스로가 폭넓은 정보를 직접 접할 수 있게 되었다.
- 인터넷상에 산재한 수많은 지식과 정보의 수집 가능성 때문에 이제 특정한 지식 하나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 대중에 기반을 둔 집단지성은 이제까지와는 다른 지식의 생산과 유통 양상을 보이며 뚜렷한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다.

(나)

- 소규모 그룹에서는 획일적 사고의 폐해가 나타날 수 있다.
- 소수의 엘리트들처럼 결속력이 높은 집단에서 이의제기를 억제하고 쉽게 합의를 이루려고 하는 경향이 나타나 무언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라)

- 여러 사람이 협력할 때에 한 개인의 지적 능력보다 훨씬 뛰어난 문제 해결력을 가지게 된다.
- 참여와 공유에 의해 생산, 축적하고 전승된 지식은 더 나은 문제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
- 위키피디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대중들의 집단지성은 새로운 지식을 생산, 축적하고 전승할 수 있다.

4. 평가 기준

[문항 1 - 가] (총 20점 만점)

(1) [기본 조건 충족]

- 다음 5개의 핵심내용이 들어 있어야 함.

■ 전문가의 권위 하락
■ 교육의 대중화와 정보기술 발전
■ 집단지성
■ 지식의 진위 분별 문제
■ 여론의 획일화와 대중의 광기

(2) [논리성]

- 제시문의 논지를 고려하여(제시문의 내용 왜곡이나 제시문 이외의 내용 추가 없을 것) 분량 배분을 잘 하고, 문장의 연결(접속사, 지시어 등 포함), 논리적 전개가 매끄럽고 요약문 자체가 하나의 완결성을 갖추고 있어야 함.

(3) [형식 요소]

- 제시문의 문장을 원래의 문장 형태 거의 그대로 가지고 오지 말아야 함.
- 논평식 서술(예: “제시문 (가)는 ...라고 하고 있다.”)을 하지 말아야 함.
- 원고지 작성법, 맞춤법, 띄어쓰기 등의 규범을 지키고 어휘나 문장이 정확해야 함.
- 제시된 분량을 지켜야 함.

[문항 1 - 나] (총 50점 만점)

- 논술문의 기본 요건인 명확한 견해, 일관된 주장, 설득력 있는 근거, 논리적 체계가 평가의 가장 중요한 기준임.

(1) [기본 조건 충족]

- 아래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
 - 문제의 논점(전문가 의견 중심과 시민 의견 중심 방안 수립이 어떻게 다른지)을 정확히 파악함.
 - 제시문 (가)~(마)에서 1개 이상 활용하여 첫 논거를 서술함.
 - 제시문 (가)~(마)에서 또 다른 1개 이상 활용하여 둘째 논거를 서술함.
 - 예상되는 반대 의견(반박)을 쓰고 그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는(재반박) 내용을 포함함.
(반박과 재반박은 글의 어느 위치에 있어도 상관없고 제시문을 활용하지 않아도 됨.)

(2) [논리성]

- 다음 조건이 충족되면 더 좋음.
 - 논거가 적절하고 <다음>에 제시된 방안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서술됨.
 - 반대 의견(반박)과 그에 대한 재반박이 논리적으로 잘 연결되고 설득력이 있음.
 - 글 전체가 선택한 입장을 중심으로 일관성이 유지됨.
 - 문장 구성, 문장의 연결, 논리적 전개가 탁월함.

(3) [형식 요소]

- 아래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
 - 자신의 선택을 첫 문장에서 밝혀야 하고 한쪽만 선택해야 함.
 - 쓸데없는 서론 혹은 결론을 붙이지 말아야 함.
 - 제시문에 나와 있는 문장을 원래의 완전한 문장 형태를 유지한 채 그대로 옮겨 적지 말아야 함.
 - 원고지 작성법, 맞춤법, 띄어쓰기 등의 규범을 지키고 어휘나 문장이 정확해야 함.
 - 제시된 분량을 지켜야 함.

5. 제시문 출전

- (가):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출제위원이 작성.
- (나): 고등학교 『기업과 경영』 (교학사, pp.89-90)에서 발췌, 수정.
- (다): 고등학교 『법과 정치』 (천재교육, pp.74-75)에서 발췌, 수정.
- (라): 고등학교 『생활과 교육』 (교학사, p.290)에서 발췌, 수정.
- (마):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출제위원이 작성.

■ 문항 2

1. 출제 의도

[문항 2]는 제시된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자료에 나타난 사회현상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능력을 측정하고자 출제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여성이 차별받는 현상이 개선 중에 있으나 가부장제 사회 속에서 남성이 우월하다는 편견이 오랫동안 지배하였고, 아직도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으로 남녀 불평등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직장에서는 취업과 임금, 승진 등에 있어 차별이 여전하다는 비판이 많다. 이러한 맥락에서 [문항 2]에서는 여성 승진의 한계로 작용하는 '유리 천장'과 관련된 상반된 입장의 주장에 대해 자료를 통해 논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학교 교육과정에 충실하였는지를 점검하고자 교과서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를 선정하고 교과서의 탐구활동을 인용·활용하였다.

2. 논제 및 자료 해설

논제는 주어진 자료를 활용하여, 여성 승진과 관련한 유리 천장 문제가 실제에 있어서는 심각하지 않다는 다소 단정적인 주장을 반박하고 더 나아가 승진에 있어 여성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이 논제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어진 자료 가운데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승진 등에 있어 불이익을 당한다는 사실, 즉 유리 천장이 존재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골라내 밀줄 친 주장을 반박해야 한다. 다음으로 제시된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여성의 승진을 강화하여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면 된다.

자료 (가)는 국가별 여성임원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임원 비율은 직장에서 유리천장의 현실을 파악할 때 주로 쓰이는 지표인데, 자료에서 보는 것처럼 선진국의 경우에도 여성임원의 비율이 모두 50% 이하라는 점에서 상대적이기는 하지만 유리 천장의 존재 자체는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임원 비율이 1.5%에 불과하여 최상위권인 노르웨이 34.3%의 약 20분의 1에 불과하다. 중위권이라고 할 수 있는 캐나다 14%, 독일 10.5%, 영국 8.5%에 비하여도 현저히 낮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자료를 통해 밀줄 친 주장을 **반박**할 수 있다.

자료 (나)는 기간별 남성과 여성의 연평균 고용증가율의 추이를 보여준다. 197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 남성과 여성의 고용증가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특히 1998-1999년의 특정 기간에는 고용증가율이 0 이하로 하락하기도 하였다. 이 자료에 따르면 여성은 남성보다 고용증가율의 변동 폭이 큼을 알 수 있고, 고용증가율은 경기변동에 영향을 받았다는 점 등만을 추론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나)는 유리 천장 문제의 심각성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고 이러한 점에서 (나)를 반박 근거로 활용하기는 어렵다.

자료 (다)는 성별/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과 여성의 경력단절 사유를 나타내고 있다. 왼쪽 선그래프에 의하면 남성에 비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M자 형을 그리고 있는데, 특히 3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또한 오른쪽 원그래프를 통해 이 현상의 주된 원인이 결혼, 육아 등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여성이 남성에 비해 능력과 무관하게 차별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따라 경력단절을 경험한 30대 여성들의 승진이 남성에 비해 어려워질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자료를 통해 밀줄 친 주장을 **반박**할 수 있다. 그리고 오른쪽 원그래프에 의하면 경력단절 사유로서 결혼, 육아 등을 들고 있는데, 유리 천장을 개선하기 위해

서는 이로 인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공보육 시설의 확대, 육아 휴직 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하고, 기업 입장에서 여성들의 근로 시간과 작업 강도를 적절히 조정하여 가족 친화적 기업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자료 (라)는 직장인에게 승진하고 싶은 희망과 기대가능성에 대해 남성과 여성에 대해 각각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남성은 과장과 차장까지 승진하고 싶다고 답한 비율이 4.2%에 불과한 반면 부장과 임원까지 승진하고 싶다고 답한 비율이 86.5%에 이르고 있으며, 부장과 임원까지 승진할 수 있다는 기대도 77.7%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 부장과 임원에 대한 희망이 76.7%로 남성과 크게 다르지 않은 반면 승진 가능성에 대한 기대는 49.4%에 불과하다. 이는 여성의 입장에서 유리 천장의 현실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음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여성의 희망은 부장과 임원이 대부분이지만 현실적인 승진 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차장에서 급격히 증가하였다는 점에서도 여성은 유리 천장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자료는 밀줄 친 주장을 반박할 수 있다.

자료 (마)는 민간과 공공 부문에 있어 여성근로자와 여성임원의 비율을 비교하고 변화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우선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에서 모두 여성근로자 비율에 비하여 여성임원의 비율이 7분의 1에서 10분의 1에 불과하여 현저히 작다는 점에서 여성이 임원으로 승진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움을 알 수 있다. 또한 여성임원 비율의 변화 추이에 있어 민간부문의 경우 적게나마 개선되고 있으나 공공부문에서는 2007년 - 2009년 기간 동안 오히려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 자료를 통해 밀줄 친 주장을 반박할 수 있다. 아울러 여성임원의 비율을 강화할 수 있는 해결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여성임원 할당제 등 여성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를 마련하고 유리 천장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경우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에 대해 모델이 될 수 있는데 반해 오히려 여성임원 비율이 축소되었다는 점에서 법률정비와 제도개선 등을 통해 공공부문에 적극적 우대조치를 우선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자료 (바)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적용/미적용 기업에서 여성임원 비율의 변화이다. 표에서 제시된 수치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실효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뿐 이를 통해 유리 천장의 심각성을 알기에는 불충분하다.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미적용 기업의 여성임원 비율이 시간이 갈수록 증가한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밀줄 친 주장을 지지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한편 이 자료에 따르면, 2005년 3월 - 2007년 2월 동안 적극적 고용개선조치가 적용된 기업에서 여성임원 비율이 0.75%p 증가하였고 이 증가분이 미적용 기업의 0.10%p와 비교해서 상당히 크다는 의미에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가 효과적인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2007년 3월 - 2009년 2월의 기간 동안은 적용 기업의 여성임원 비율이 0.60%p 비율이 증가하였지만, 미적용 기업의 0.53%에 비해 그다지 크지 않다는 의미에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실효성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실효성 감소는 각주에 제시되었듯이 1000인 이상 기업에 비해 500인 이상에 확대 적용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를 종합하면, 유리 천장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고, 그 방법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에 대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방향 등으로 정책의 초점을 집중하는 것이다.

3. 예시 답안

우리나라에서 유리천장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첫째, (가)에서 우리나라 여성임원 비율은 다른 국가에 비하여 최하위권일 정도로 낮다. 둘째, (다)는 3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감소하는 것은 경력단절로 인해 승진이 어렵게 된다는 점에서 유리천장 문제가 심각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라)에 의하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부장·임원이 될 희망과 기대가 낮을 뿐 아니라, 승진에 대한 희망에 비해 기대가 상대적으로 차장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은 유리천장 문제를 심각하게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마)에 의하면 여성근로자의 비율에 비해 여성임원의 비율이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모두 대단히 낮고, 공공부문에서 2007-2009년에는 이마저도 하락하고 있다.

유리천장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다)에 근거하여 경력단절 여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 환경도 육아가 가능하고 가정 친화적인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마)에 근거하여 여성임원비율 할당제와 같은 여성임원의 비율을 높이는 제도 개선을 공공부문 중심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바)에 근거하여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에 대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실행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 (띄어쓰기 포함, 653자)

4. 평가 기준

(1) [핵심 내용]

- 반박의 근거로 자료 (가), (다), (라), (마)를 선택하고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함.

자료	핵심 내용 (채점 포인트)
가	- 우리나라 여성임원 비율이 세계적으로 최하위권임을 지적.
다	- 여성이 30대에 남성에 비하여 경력단절이 심각함을 지적하고 결혼, 육아 등으로 인해 능력과 무관하게 차별받음으로써 경력단절이 심화되고 유리천장이 현실화될 수 있음을 지적.
라	- 남성과 비교하여 여성이 직장에서 승진에 대한 희망은 비슷하지만 승진에 대한 기대 또는 가능성 인식이 상대적으로 적음을 지적. - 여성의 경우 부장 및 임원까지 승진을 희망하지만 현실적인 기대는 차장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짐을 지적
마	- 민간과 공공 부문 모두에서 여성근로자 대비 여성임원의 비율이 현저히 적음을 지적. - 민간에 비해 공공 부문에서 여성임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고 특히 2007-2009에서 악화되었음을 지적.

- 유리천장 해소 방안에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서술할 수 있음.

자료	핵심 내용 (체크 포인트)
다	- 일과 가정 양립 정책 - 가정 친화적 기업 환경 조성
마	- 여성 임원 할당제(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 법률정비 및 제도개선을 통해 공공부문 개선 강화
바	-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의 확대 또는 실효성 제고 -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2) [논리성]

- 자료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자료와 주장 사이를 설득력 있게 연결하며 개념을 정확하게 사용하고 글을 체계적으로 구성해야 함.

(3) [기본 조건]

- 자료를 언급해야 하고 적합한 자료에 근거해야 함.
- 제시된 분량을 준수해야 함.

(4) [형식 요건]

- 원고지 작성법, 맞춤법, 띄어쓰기, 어휘와 문장의 정확성과 명료성 등 한글 답안의 형식적 요건들을 충족해야 함. 또 단위를 정확하게 사용해야 함.

5. 자료 출전

<다음>: 구정화 외, 고등학교 <사회·문화> (천재교육), ‘사회 불평등의 여러 형태’ 단원, pp. 152-155.

김영순 외,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학사), ‘사회 불평등 문제와 해결 방안’ 단원, pp. 161-166.

박선용 외, 고등학교 <사회·문화> (금성), ‘사회 불평등 문제와 해결 방안’ 단원, pp. 152-154.

(가): 『젠더리뷰』

(나): 『산업관계연구』

(다): 통계청

(라): 『사회연구』

(마): 『여성경제연구』

(바): 『여성경제연구』